

# 18년 갈등 '광주 북동 재개발' 사전공공기획으로 추진

### 수창초교 일대 노후 원도심...광주시, 전담팀 구성해 개발 전략 논의 주민 간담회·전문가 토론회로 가이드라인 마련...후속 일정 신속 지원

광주시가 20년 가까이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북동 재개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공공기획'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광주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전공공기획으로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14일 시청에서 '북동 사전공공기획 전담팀' 1차 회의를 갖고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18년 동안 찬반 갈등을 빚어온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앞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계 전문가, 공공건축가, 시의원, 시·구 담당 부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여하는 '북동 사전공공기획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북동 사전공공기획의 비전, 목표, 개발방향, 전략 등을 논의했다. 사업 추진주체인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건의

사항 등도 청취했다.

전담팀은 주민과의 간담회, 사례연구, 타당성 검증, 계획원칙·세부과제 설정,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유도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심의,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고시 등 후속 일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은 수창초등학교 주변 중심·일반 상업지역으로 광주시의 대표적 노후 원도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의 전면철거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사업지다.

특히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업구역과 인근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존치한 가옥 등 근대건축물과 북동성당, 수창초등학교(분관) 등 광주시 지정문화재, 금융·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고, 아시안화전단, 옛 전남·일신방직 등과 연계되는 급남로, 독립로와도 가깝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비사업 자체가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공공기획 제도 도입으로 광주시와 자치구, 그리고 주민이 원팀이 돼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북동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검토·분석해 다른 재개발 구역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동 재개발정비사업은 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250㎡ 부지에 22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2차례 정비계획을 입안했으나 부결됐다. 이어 2019년 3차 정비계획(안)을 입안해 경관심의를 신청, 3차례 심의 끝에 조건부 결정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14일 오후 여수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광양만권 산업단지 입주 기업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제공>

## '광양만권 산단 용수공급' 기업·기관 맞손

### 전남도, 영산강청 등과 협약...용수 절감·하수 재이용 등

전남도가 50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지역경제 버팀목인 광양만권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기관, 지자체, 관련 기업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업용수 부족으로 자칫 가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각급 기관 대표들과 가뭄 극복을 위한 광양만권 산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중기 여수시 부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백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장, 영동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장, 장갑중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장 등 40여 회원사, 이진수 포스코광양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과 기업들은 ▲기업의 공업용수 10% 절감 노력 ▲공업용수 수급 안정을 위한 공장 폐수 및 하수 재이용사업 확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수원 다변화 및 수원 간 연계 사업 추진 방안 모색 등에 나서게 된다. 또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뭄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폐수의 친환경적 사용, 빗물·하수처리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도입 등 친환경 대체수원 발굴에 적극 동참·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극심한 가뭄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광양만권 산단 기업과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공장 폐수 및 하수 재이용사업 확대에 힘써 광양만권 산단 입주기업의 원활한 공업용수 수급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광양만권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폐수 재활용 및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또 공업용수를 대체할 친환경 대체 수원 개발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초등생 우유 무상급식 道, 3년째...전국 지자체 유일

전남도가 학교 우유 무상 급식 예산 113억 원을 확보하면서 전남 모든 초등학교들은 올해도 학교에서 우유를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올해도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22개 시·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전남도는 특히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 무상급식 지원사업 대상자를 축소하면서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들자 '학교 우유 급식 확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지방비 5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11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남 전체 초등학교생 및 240명 이하 소규모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 무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 우유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초·중·고교 우유 급식률이 전국 평균(30%)의 2.5배에 이르는 80%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옛 호남대 부지 아파트 건설사 고발

### 바닥면 기초공사 방식 변경...사업계획 승인 전 시공 확인

광주시가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는 "최근 이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정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바닥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광주시는 판단했다.

이 현장에서는 애초 지반 위에 기둥 형태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바닥면 기초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공사 업체 측은 콘크리트 파일 없이 바닥면을

두껍게 시공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신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선(先)시공 후(後)승인 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해 고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법 변경 과정에서 지내력(지반이 구조물 압력을 견디는 힘) 등 전문가 상대로 기술적 검토를 했다지만 법적 절차는 누락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다만 공사 중지 등 공정에 차질을 빚을 만한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농업 신기술 보급 555억 투입

### 가루쌀 자립형 모델 구축 등 159개 사업 실시

전남도가 기후변화, 디지털 농업 등 변화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555억원을 들여 신기술 현장 보급을 확대한다. 사업 분야별로 ▲식량작물 44개 사업 241억원 ▲원예작물 54개 사업 162억원 ▲축산 32개 사업 89억원 ▲농촌자원 29개 사업 63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94억원 증액된 규모다.

식량작물 분야에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가루쌀 자립형 모델 구축, 밀 벨리 산업화, 콩 자립형 모델 구축 8개소를 추진한다. 또 기상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7000 농가 서비스 지원, 모판 관주처리 및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비 103억원 등 식량자급률 향상과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원예작물 분야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17개소에 65억원을 투입해 시·군 맞춤형 소득작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 대응을 위해 원예작물 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 13곳, 전남형 스마

트랩 모델 25곳을 추진한다. 국내 육성 품종 보급 16곳, 우량 마늘 종구(씨마늘) 생산 보급체계 구축 2곳 등 원예종자 자급화와 경영비 절감도 역점 추진한다.

축산기술 분야에선 축산업 규모화에 따른 축산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농장 맞춤형 냄새 저감 복합 관리기술을 도입한다.

농촌자원 분야는 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농업인 가공, 창업 활성화 13개 사업에 35억원, 농촌체험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14개 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해 농산물 부가치 향상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산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농업을 확대하겠다"며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산물 안정생산 및 영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신기술 보급 현장 실용화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